

5.27신흥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제
10회 글쓰기 대회 수상작
최우수상 (지상)

제목 : 잔광
3-5 안*기

제목: 잔광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서
잔광이 흔들린다.
그 빛은
손끝에 달을 듯,
허공을 떠도는 기억처럼
희미하게 스민다.

폭풍 속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그 울림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향해
가슴에 새겨진다.
피의 자국이 남은 길목,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걸어갔던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제는 별처럼 빛난다.

비록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들의 이름은
잔광 속에 여전히 살아 있다.
하늘이 어두워져도
새벽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듯이,
그 빛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누군가의 눈물이 되어,
누군가의 손길이 되어,
그들의 꿈은
세월을 넘어,
끝내 달을 것이다.

제목: 가꿈은

가꿈은
상어 걱정 없이
흐르는 바다 위에
그냥 내 몸을 맡기고 싶다

가꿈은
흘러가는 바다처럼
방향 없이
내 마음대로 떠나고 싶다

가꿈은
무거운 말들을 벗고
침묵 속에 나를 숨기고
그곳에서 처음처럼
가벼워지고 싶다

가꿈은
누구도 묻지 않는 길 위에서
내 속도를 찾고
내 온도로 살아가고 싶다

가꿈은
내가 선택한 하루가
누구의 틀도 아닌
나만의 것이기를 바란다

가꿈은
그냥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믿어졌으면 좋겠다

제목: 기억의 반음계

서녘의 구름이 무게를 품던 날,
비명은 혀를 감춘 채
벽돌 사이로 스며들었다.

깨어 있던 자들은
이름 없이 부서졌고
붉은 잎사귀 하나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낙하였다.

정적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는 침묵을 연주했고
그 음표마다
잇힘과 저항이 겹쳐졌다.

남은 것은
고요를 관통한 울림,
철 지난 광장의 틈에서 자라난
의지의 이끼 하나

제목: 끓는 점

처음엔 조용했다.

손끝에도,
입술에도,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물처럼 스쳤고,
공기처럼 스며들고,

나는 너를 붙잡지 않았다.
너도 나를 데우려 하지 않았다.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기포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터지지 않았다.

사랑은 끓는 순간을 두려워했다.
속박과 열망이 서로를 밀어냈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
언제쯤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지,
언제쯤 손을 놓아야 하는지.

그래서 조심했고,
조심하는 사이
자유로웠고,
자유로운 만큼
서로를 잃어갔다.

한 번도 터지지 않은 말들이
투명하게 바닥에 가라앉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시간.

서로를 묶지 않았기에,
서로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가끔은
기포 하나 터질 때마다
내 안의 너를 조금씩 비워냈다.

너는 너의 온도로 살아 있었고,
나는 나의 속도로 식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제목: 눈, 눈, 눈

첫 번째 눈 -

꽁꽁 언 마음에 흰 짐승이 걸어온다
발자국마다 오래 잠긴 이름들이 깨어난다

두 번째 눈 -

가만히 감았던 세계가 젖는다
단힌 창 너머, 희미한 숨결처럼
날개도 없이 나는 법을 배운다

세 번째 눈 -

어디에도 닿지 않는 시선이 되어
나는 나를 녹인다, 지운다
사라지며 더 넓게 번지는,
흔적 없는 발자국이 된다

눈, 눈, 눈

가득 쌓이고,
나는 비로소, 없다

제목: 마지막 꽃잎

거리의 나무에서
꽃잎이 한 장, 또 한 장 떨어진다.

마지막 꽃잎마저 질까 두려워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아
지켜내려 애썼다.

그러나 끝내 마지막 꽃잎은 떨어졌고
나는 서둘러 손을 내밀어
땅에 닿지 않도록 감쌌다.

하지만, 그 조그만 꽃잎이 너무 무거워
결국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꽃잎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고였다.

제목: 망각의 유예

절벽의 기운, 미로 속 망각,
부서진 유령, 자락으로 흩어지다.
척박한 땅, 혼동의 태동,
명예는 잣더미로 변하니, 귀신처럼 잡든다.

구천을 떠도는 회한의 숨결,
피골에 얹힌 굴레, 아득한 유예.
시공의 틈새, 쇠망치로 찍힌 자취,
진리란 철학에 묻혀 고요히 허공에 떠돈다.

제목: 백야

밤이 죽지 않는 나라에서
빛은 핏줄처럼 흘러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심장을 두드린다

빛이 흐른다,
빛이 흐른다,
빛이 흐른다-

있는 잠들지 못한 채
빛을 먹고 자란다
새는 꿈을 꾸지 못한 채
노래를 삼킨다
나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살아 있다는 증명을 쓴다

빛이 흐른다,
빛이 흐른다,
빛이 흐른다-

여기선 어둠조차
무릎을 꿇고 지나간다
그 자리에 남는 건
끈질기게 박동하는
백야의 심장

그리고 그 심장을 닮은
나의 하루

빛이 흐른다,
빛이 흐른다,
빛이 흐른다-

제목: 칫솔이 닿지 않는 곳

양치를 한다
하얀 거품으로 밤새 묵은 침묵을 문질러 본다
하지만 이빨 사이엔 여전히
특권의 찌꺼기가 낀 채
버티고 있다

가글을 한다
파란 액체로 세상의 쓴말을 행구려 하지만
입안엔 차별의 잔향만 가득하다
어떤 입은
거품보다 먼저 씻겨 나가고
어떤 입은
한 모금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거울 속 나는 오늘도
깨끗한 척, 단정한 척
입을 닦는다
그러나 누구의 혀끝은
여전히 말라붙은 권리로 짹짹 갈라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왜 이 냄새는
아무리 행궤도 사라지지 않느냐고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썩은 이를 감춘 채 웃고 있느냐고

제목: 해시계의 그림자

1시

빛은 아직 젖은 흙을 더듬고,
씨앗 하나가 어둠 속에서 눈을 뜬다.

2시

바람은 이름을 부르듯 속삭이고,
작은 숨결은 세상에 뿌리를 내린다.

3시

햇살은 처음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그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일어난다.

4시

물방울 같은 웃음이 잎사귀마다 맺히고,
세상은 무한한 장난감처럼 펼쳐진다.

5시

땀은 햇살에 말라가고,
꿈은 허공에 줄을 그으며 자란다.

6시

사랑이 피고 지는 계절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잃고 찾아간다.

7시

비로소 그는 나무가 되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준다.

8시

노을은 서쪽 창에 걸리고,
속삭이듯 자라는 타인의 숨결이 곁에 스민다.

9시

가지 끝이 무거워지고,
그는 무언의 눈빛으로 시간을 건넌다.

10시

추억은 낡은 책처럼 넘겨지고,

손끝은 더 이상 내일을 가리키지 않는다.

11시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고,
뿌리는 스스로의 무게를 품는다.

12시

그는 마지막 숨을 뱉고
조용히 빛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땅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숨결이
다시 1시를 향해 기지개를 켜다.

제목: 허공의 정원

가지는 제 스스로를 꺾고
뿌리는 제 이름을 뽑았다.

나는 검은 강 위에
깃털 하나를 띄우고,
숨의 무게를 팔아버렸다.

빛은 눈을 버리고,
바람은 제 살을 찢었다.

그리고,
텅 빈 정원 한가운데
나는 씨앗 아닌 껍질로 서 있었다.

피어나지 않는 꽃들이
말없이 나를 감쌌고,
나는 그 속에서
끝없는 거울을 배웠다.

제목: 황금 사다리

모두에게 열린 문이라며
쇠사슬로 잠근다
너도 올라올 수 있다며
사다리를 태워버린다

가난은 게으름이라 부르고
부는 노력이라 찬양한다
눈 감고 재단한 정의 위에
저울은 기울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가진 자는 더 가져야 한다며
없는 자의 몫을 나눠준다
당신을 위한 법이라며
당신을 죄인으로 만든다

자유를 위해 견디라며
입을 막고, 손을 묶는다
평등한 기회를 준다면
출발선에 담장을 세운다

그래, 이게 공정이란다
그들의 언어로는.